

한솔케미칼, 완주 산단에 400억원 투자

완주군과 증설투자 MOU 체결... 군,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기업투자 4854억원 협약 등 큰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반도체용 프리커서 등을 생산해온 국내 우량 중견기업인 (주)한솔케미칼(대표 박원환)이 완주공장에 주력제품의 양산을 위한 대규모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크게 기대된다.

완주군은 7일 오후 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유희태 군수, 박준규 (주)한솔케미칼 완주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솔케미칼 완주공장 증설투자 MOU 체결식'을 갖고 완주일반산단 내 제1공장 부지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400억 원을 증설 투자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반도체용 프리커서 등을 생산해온 국내 우량 중견기업인 (주)한솔케미칼(대표 박원환)이 완주공장에 주력제품의 양산을 위한 대규모 추가 설비투자에 나섰다.

이로써 민선 8기 출범 이후 완주군의 기업투자 협약 체결은 정석케미칼(525억 원)과 코웰패션(2,200억 원), 플라스틱유니온 코리아 뉴에너지(536억 원), 수소 전문기업인 (주)에테르씨티(597억 원), 진로지스틱(200억 원) 등 8개사에 총 4,854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5,000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용 박막(薄膜) 프리커서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재료, 반도체 등 정밀 화학재료를 생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미국의 MICRON 등에 공급하는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반도체 시장이 전기차와 AI 등 후방산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력제품의 양산설비 구축을 통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추가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한솔케미칼은 완주군 봉동읍에 제1공장과 울산 남구에 제2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번 증설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고용 창출과 함께 완주지역을 국내 생산거점으로 향후 전국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추가투자 30여 명의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완주산단 내 협력업체와 자재조

달, 생산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준규 한솔케미칼 완주공장장은 이날 "주력제품의 시장수요가 늘고 고객층이 다변화되면서 완주 공장의 증설투자에 적극 나서게 됐다"며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도정의 제1목표"라며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는 한솔케미칼이 이번 증설투자를 계기로 더욱 번창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온 한솔케미칼의 완주 추가 투자를 크게 환영한다"며 "완주를 생산거점으로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도, 제9기 관광모니터단 추가 모집

관광 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모니터링 활동 확대 · 13~17일 접수 · 도내 36개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 · 소정의 보상금 지급

전북도는 도내 관광지,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및 방문객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관광 서비스 질 향상에 앞장설 제9기 관광모니터단을 추가 모집한다.

도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선출된 제9기 관광모니터단 26명이 활동 중이나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아태 미스터스 대회 등 국제 행사 개최로 도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모니터단을 추가로 선발해 활동을 강화한다.

추가 모집인원은 관광모니터 10여 명으로 전라북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추가 모집된 제9기 관광모니터단은 2023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4개월간 도내 관광지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라북도 부여패스, 축제, 문화관광행사 등 관광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관광정책 아이디어 제안

과 관광지 온라인 홍보에 나선다.

더불어 관광 모니터링을 발급받아 전주 경기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도내 36개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제보건수에 따라 소정의 보상을 지급받는 한편, 관광 모니터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는 도지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9기 관광모니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오는 17일까지 이메일(jminhw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 모니터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관광 모니터 담당자에게 문의(☎280-2708)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27일이며, 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다.

전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 관광모니터단이 늘어나면 도내 관광 서비스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민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만경강 살리기 용역 중간 점검 보고회 개최

용역 진행상황 보고 · 관련기관 의견수렴 · 추가사업 발굴 등 논의 · 올해 7월 용역 마무리 예정

전북도는 7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계시군, 전북지방환경청,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발굴된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만경강 살리기 용역 중간 보고회.

해당 용역은 2021년 8월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 후속 조치 일환이다. 만경강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약 이행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조사된 만경강의 생태·문화자원 조사결과, 사업 발굴현황 등 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그간 발굴한 핵심 및 연계 발전사업 등 만경강 기본구상(안)에 대한 발표, 참석자들의 의견수렴과 논의, 추가사업 발굴 등에 초점을 맞췄다.

만경강 살리기 용역은 생태계 복원,

생태자원 활용한 생태탐방 거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난 만경강과, 만경강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명품하천 기반 구축, 강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만경강 샛강 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호 조성, △산천습지 보호지 역 지정, △만경강 생물자원관 건립 등이 있다.

명품하천 기반구상으로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완주 비비정 부근 전주-완주 상생협력 생태공원 조성, △만경강 시너 레포츠타인 조성, △만경강 디지털트윈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강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만경강 레저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 △만경강 청소년 생태캠프 개최, △만경강 생태문화제 개최 등을 시군, 전문가와 협력해 발굴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추가사업 발굴 등을 거쳐 올해 7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이태원 참사 전주시 분향소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서울 광장 분향소에 서울시가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내며 유족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는 당분간 유지키로 된다.

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전북 희생자 유족들은 최근 시에 "분향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시 흥남문 광장 분향소는 지난해 12월29일에 설치돼 이달 5일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끝으로 자진철거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유족들은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추모 등을 이유로 분향소 유지를 요구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지난 5일 참사 100일 추모 기자회견에서 "분향소는 시민들에게 사고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곳이고 묵숨과 같은 장소"라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분간은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은 하지않고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면서 "유족과 협의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공항서 꺼진 운영검색기에 승객 29명 통과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엄중 제재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킨 것이 확인돼 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를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장비(운영검색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산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없이 승객 29명이 통과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상부에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일시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승객이 통과하는 운영검색기가 해당시간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관련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군산공항에서의 항공보

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보안설비 사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법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법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 문책했다.

정부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칼, 망치, 가스 통 등의 물건을 고지하고 공항 보호구역(Airside)에서의 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영중 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보안의 기본원칙을 공항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제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 전북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토론에 변철 담담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회 권역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원, 단재 특강교수
- KBS TV야심마당, MBC TV, JT, TBS로인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비성담사
- 전주매일 부시장
- 저서 '365스피치이슈이슈'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시낭송시도자 등 지역 초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외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아)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